

시, 그대를 듣는다

- 정재찬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정재찬(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질문자 정희창(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때 2018. 2. 20.(화) 곳 한성칼국수

‘문학’ 대신에 ‘말꽃’이라는 말을 쓰자고 제안했던 분이 있다. ‘말꽃’은 말에서 피어난 꽃과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문학이 꽃이라면 ‘시’는 어떤 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 줄 것 같은 사람이 정재찬 교수다. 어느 날 갑자기 유명 인사가 되어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그 과정이 극적이다. 늘 시를 가르치다가 우연히 공대생을 위한 시 강좌를 개설했고 열광적인 호응에 힘입어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 책에 공대생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그다음에는 자꾸만 유명해졌다는……. 뭐,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다.

그런데 유명해진 이유가 ‘시’를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믿기지 않는다. 유명한 운동선수나 영화배우가 된 것도 아니고 늘 하던 ‘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듣기 시작했다니……. 세상이 뭉가에 흘린 것인지, 정재찬 교수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마술을 부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시를 이야기하면서 유명해지는 마법 같은 일을 벌이는 생물학적 존재의 서식지가 우리나라가 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시 같은 것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곳이라는 게 내 생각이었다.

정희창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드디어 같이 면을 먹는 날이 왔네요. 선생님 하면 '시'와 더불어 '면'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 책에도 '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요?

정재찬 '냉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희창 냉면을 좋아하시던 아버지와 함께 냉면을 먹었던 날을 그리워하는 선생님의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재찬 교수는 스스로 애면가임을 밝힌다. 사람들과도 '다음에 밥이라도 한번'이라는 말 대신에 '국수라도 한번'이라는 약속을 즐겨 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칼국수집에서 만났다. 칼국수를 먹으면서 동서남북 방향에 위치한 장안의 유명한 냉면집을 이야기했고 내가 사는 혜화동의 유명한 칼국수집을 품평했다.

“나이 든 남자가 혼자 밥 먹을 때 ‘울컥’ 올라오는 것이 있다. 큰 덩치로 분식집 메뉴를 가리고서 등 돌리고 라면발을 건져 올리고 있는 그에게, 양푼의 식은 밥을 놓고 동생과 눈 흘기며 손갈 싸움하던 그 어린 것이 올라와, 갑자기 목메게 한 것이다(황지우, <거룩한 식사>)”라는 시구에서 처럼 한 가닥의 라면과 국수 가락에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 주는 끈 같은 묘한 느낌이 들어 있다.

- 정희창 선생님의 《시를 읽은 그대에게》라는 책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듯한데 책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요?
- 정재찬 학교에서 공대생을 대상으로 융복합 강의를 개발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읽는 불후의 명시'라는 이름의 강좌를 준비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밤을 잇고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라디오처럼 시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시를 읽은 그대에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 정희창 책을 보면 '공대생을 위한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실제로는 공대 학생뿐 아니라 일반 장년층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 정재찬 '시를 읽은 그대에게'는 진작부터 제가 지어 놓은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부제를 그렇게 붙이게 된 것은, 사랑하는 '공대생' 제자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흔히들 감성 부재의 대명사처럼 알려진 '공대생'도 좋아하는 시 강의니까 어지간한 독자들은 다 부담 없이 즐겁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뜻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특이할 정도로 50대 남성들이 많이 읽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불후의 명곡'처럼 세대 간에 문화적 기억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정희창 책이 나오고 예상하지 않았던 방송 출연을 계속 하시게 되었을 때 힘들거나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저 같은 사람은 카메라 앞에 서면 당황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 정재찬 텔레비전 방송에서 시를 낭송하고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라고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시대가 시를 원하고 있었는데 운 좋게 때가 맞아 제가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를 대중화할 수 있는 기회니만큼 과감하게

방송 출연을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실은 어렸을 때부터 남 앞에서 말을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하는 일에 큰 두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니다. 조금 늦게 태어났더라면 공부 쪽보다 연예계로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웃음) 다만 제가 출연했던 한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들의 사연을 듣고 그에 알맞은 시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 주는 식으로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그때그때 적절한 시를 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정희창 수많은 시 가운데 독자의 사연에 맞는 적절한 시를 어떻게 찾으셨는지요? 혹시 가나다순이나 주제별로 분류를 해 놓으신 건 아닌지요?

정재찬 분류를 해 놓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작정 이러저러한 내용의, 이런 색깔의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찾아 보면 제가 원하는 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시가 저를 찾아 준 건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새로운 시도 접하게 되고, 새삼스레 새롭게 다가온 추억의 시도 만나게 되고 참 복된 경험이었습니다.

정희창 공대생을 위한 시를 고르고, 독자의 마음을 적시는 시를 골라 주셨으니까 아예 '마음이 우울할 때 읽으면 좋은 시', '가을 하늘을 보며 읽는 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읽어 주고 싶은 시' 같은 것을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재찬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하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번다한 일로 인해 제 시간을 온전하게 다 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시를 통한 소통과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시 감상이 시의 내용적 측면에만 치우치는 위험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 언어가 도구라면 시적 언어는 존재 그 자체이지요. 그래서 시를 읽고 듣는 것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눈과 귀를 기울이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좋아하는 시는 그만큼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여백이 많은 시라고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정희창 문학이라고 하면 시 외에 소설이 생각나고 또 음악이나 미술도 문학과 관련이 있을 듯합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처럼 소설이나 음악, 미술을 통해서도 독자의 가슴을 울리는 작업이 가능할까요?

정재찬 사실 어렵고 힘든 일에 지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시를 듣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을 눈물로 적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에서나 강연에서나 시를 바탕으로 독자의 문화적 기억 속에 공유하고 있을 음악, 미술, 영화나 광고 등을 통해 복합적인 감각과 문식성을 환기 내지 활용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와 문화적 레퍼토리가 다른 분들은 별도의 투자를 하셔야 하겠지요. 그래도 독서나 강연에서 낯선 시와 그림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감상할 수 있으니 조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소설이나 음악의 경우에는 작품을 온전하게 감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정희창 선생님의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굉장히 친숙한 시를 선정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시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친숙한 시를 선택하면 독자에게 친근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다 아는 시라는 선입견으로 해석의 여지가 무척 좁아질 듯한데 어떠셨는지요?

정재찬 《시를 잊은 그대에게》는 주로 교과서에서 다루었던 시들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넘어 누구에게나 친숙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선입견에 가려져서 그 진수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지요. 그걸 역이용

하고 싶었습니다. '나 이 시 배워서 잘 알아, '학창 시절 때 배웠는데 참 지겨웠어' 이런 걸 뒤집어서 새로 눈뜨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 겁니다. '낯설게하기'의 일종이라 할까요. 그렇다고 지난 날 배운 게 틀렸고 제 해설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 이처럼 정답이 없으니 시 해석과 감상에 도전하고 즐기라는 것이지요. 시험을 위해서는 시를 '꼼꼼히' 읽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향유를 위해서는 '풍부히' 읽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여러 작품과 해석, 다른 문화와 예술의 사이와 차이를 풍부하게 즐기며 향유하는 것이지요.

정희창 선생님께서는 유명한 미술사와 함께 시와 미술이 공감하는 작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와 미술과의 만남은 무척 독특하고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어떠한 의미였는지요?

정재찬 미술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현란한 볼 것이 아니라 미술이라는 언어로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을 '환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환상은 '시'가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시가 자신의 언어와 색깔로 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미술에도 자신의 언어와 색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의 마음을 전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상과 공감하는 목소리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미술 같은 일이지요.

그럴 것이다. 시가 빚어내는 미술, 그 마법 같은 힘은 사실 놀랍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다. 가까운 곳에서 위로와 용기를 전해 주던, 그 시를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을 뿐이다. 말라 가는 화초에 물을 적시듯 그 잊었던 기억을 다시 불러내서 정성스럽게 보듬어 주는 순간, 마른 잎이 다시 살아나 잊었던 기억을 되찾고 공감하며 꽃을 피우는 신기한 미술이 일어난 것뿐이다.

정재찬 교수의 두 번째 책이 《그대를 듣는다》인 것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당신의 진실한 목소리에 담긴 힘, 시가 주는 위로의 힘은 결국 소리가 아닌 사랑하는 그대를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고, 그 마음이 결국 시일 테니까.

